

 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
	배포일시	2021. 5. 13(목) / 총 2매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 급행철도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장창석, 사무관 배상철, 주무관 차동욱 • ☎ (044) 201-3981, 3969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창릉역은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신도시 사업시행자 부담 조건의 역 신설이 건의되어 검토 중입니다.

<보도내용('21.5.14, 뉴스시스)>

◆ 창릉은 위에서 툭 떨어졌다.... 국토부 발언에 김포 시민들 '분노'

- GTX-A 창릉역의 신설은 철도건설법 및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- 철도건설법 제22조에 따르면 기존에 건설·운영 중인 철도노선에도 역신설을 요구하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고, 타당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역의 신설이 가능합니다.
- 창릉역의 경우 당초 철도건설법에 따라 진행하던 GTX-A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,
 - 창릉신도시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비 부담을 전제로 건의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('20.12)되었고 현재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- 국토부 담당 주무관의 “창릉은 위에서 푹”이라는 발언은 당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에서 추진하는 GTX-A 사업과는 별도로 창릉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업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습니다.

- 민원대응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 한번 민원응대 등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배상철 사무관(☎ 044-201-398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